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김대웅*

들어가는 말

교회사에서 성경 해석의 주요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관례를 형성하고 그것들을 교회 지도자들 및 구성원들에게 충실히 계승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성경 해석 활동의 시초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었다. 성경의 다양한 전통들에 입각한 성경 해석 작업은 모세오경 등 구약 성경의 이른 시기 본문들의 다양한 신학 전통들을 모세오경 이후의 선지서나 성문서가 수용하고 계승하는 방식, 이른바 구약 성경의 내적 해석을 통해 이미 구약 정경의 발전 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¹⁾ 그 결과 예언자들은 오경에 큰 비중을 두고 의존했으며, 또한 오경에 대한 서로의 논평과 해설에 의존하는 등,²⁾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여러 책들의 저자들은 밀접한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1) 이에 관하여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Martin Jan Mulder and Harry Sysling,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Van Gorcum, 1988); Sipke Draisma,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1989); Richard L. Schultz, *The Search for Quotation: Verbal Parallels in the Prophe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G. K. Beal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2) 존 H. 세일해머, 『모세 오경 신학: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 김윤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26.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구약 성경 한 본문의 저자가 다른 본문의 저자의 글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한 그 이해에 근거하여 어떻게 자신의 시대 청중들에게 적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성경 내적 해석 연구자들의 관심사다. 성경의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글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을 암시하고 설명하고 혹은 변형하는 문학적 기법을 밝히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³⁾

3) 그들의 최근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Richard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29-32; Robert Alter, *The Pleasure of Read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9), 129-135; Dale C. Allison Jr.,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19-20; Cynthia Edenburg, "How (Not) to Murder a King: Variations on a Theme in 1 Sam 24:26," *SJOT* 12:1 (1998), 72-74; Schultz, *The Search for Quotation*, 72-74;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9), 76-105;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10-13; David Carr, "Method in Determination of Direction of Dependence: An Empirical Test of Criteria Applied to Exodus 34, 11-26 and its Parallels," Matthias Köckert und Erhard Blum ed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107-140 (특히, 108-112, 126); Denis R. MacDonald, "Introduction," idem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2-3; Jon Paulien, "Criteria and the Assessment of Allusions to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teve Moyise ed., *Stud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 & T Clark, 2001), 127-129; Adele Berlin, "Qumran Laments and the Study of Lament Literature," Esther G. Chazon ed., *Liturgical Perspectives: Prayer and Poetry in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Orio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ead Sea Scrolls and Associated Literature*, January, 2000 (Leiden: Brill, 2003), 6-17; Esther G. Chazon, "The Use of the Bible as a Key to Meaning in Psalms from Qumran," Shalom M. Paul ed., *Emanuel: Studies in Hebrew Bible Septuagint and Dead Sea Scrolls in Honor of Emanuel Tov* (Leiden: Brill, 2003), 85-96 (특히, 95-96); Marko Jauhiainen, *The Use of Zechariah in Revel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5), 33-35; Benjamin G. Wold, *Women, Men, and Angels: The Qumran Wisdom Document Musar leMevin and its Allusions*

본 논문은 성경 본문의 해석을 보관했고 또한 전수한 책으로서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 내에서 어떤 내적 해석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시내산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실례로 고찰한다.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성경 저자들의 성경 내적 해석을 다루는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 모세는 신명기 9-10장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되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강조점을 끌어낸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바벨론 포로시대의 역사가에게도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주었으며, 시편과 느헤미야에서도 다시 기억되었고,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및 초대 교회 신학자들 역시 길고 풍성하게 그 전통을 이어갔다.⁴⁾ 논지는 우선 오경의 저자로서 모세가 시내산 반역

to Genesis Creation Tradi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77-79; Julie A. Hughes, *Scriptural Allusions and Exegesis in the Hodayot* (Brill: Leiden, 2006), 50-54; Jeffrey Stackert, "Rewriting the Torah: Literary Revision in Deuteronomy and the Holiness Legislation," Ph. 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2006), 26-36; Jeremy Daniel Smoak, "Building Houses and Planting Vineyards: The Inner-Biblical Discourse of an Ancient Israelite Wartime Curs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7), 5-31 (특히, 21-31); Jeffery M. Leonard,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BL* 127:2 (2008), 241-265 (특히, 245-257); Michael A. Lyons,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T & T Clark, 2009), 47-75 (특히, 59-75); Yitzhak Berger, "Ruth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Case of 1 Samuel 25," *JBL* 128:2 (2009), 253-272 (특히, 254-257); Daewoong Kim,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Literary Allusions in Daniel to Genesis and Ezekiel," 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 4) 이스라엘의 시내산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하여 Walter W. L. Moberly,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JSOT Press, 1983). 이 사건에 관한 출애굽기와 신명기 비교 연구는 Moshe A. Zipor, "The Deuteronomic Account of the Golden Calf and its Reverberation in Other Parts of the Book of Deuteronomy," *ZAW* 108:1 (1996), 20-33; 시내산 반역 사건과 역로보암 서사의 관계는 Moses Aberbach and Leivy Smolar, "Aaron, Jeroboam, and the Golden Calves," *JBL* 86:2 (1967), 129-140; George W. Coats, "The Golden Calf in Psalm 22," *HBT* 9:1 (1987), 1-12; 신약 성경과 관련하여 Terrance Callan, "Paul and the Golden Calf," *Proceedings* 10 (1990), 1-17; Alec J. Lucas,

사건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적용한 해석의 내용과 방식을 고찰하겠다.⁵⁾ 이어서 모세가 기록하고 해석했던 시내산 언약 파기 사건을 여로보암 서사의 저자는 어떻게 충실히 지속했고 동시에 새롭게 해석했는지를 분석하겠다.

1. 시내산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기록과 해석 (출애굽기 32장-34장; 신명기 9장-10장): 모세 오경 내의 성경 내적 해석

출애굽기 32장-3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각시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은 파괴되지만(32장) 다시 회복된다(34장). 그 과정에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들이 파괴되었다가(32장) 다시 제조되고(34장),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위한 모세의 간구가 32장에서 시작되어 33장을 거쳐 34장에서 절정에 이른다.⁶⁾ 황금 송아지 사건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는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 이후 출애굽기 내용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Reorienting the Structural Paradigm and Social Significance of Romans 1:18-32,” *JBL* 131:1 (2012), 121-41; Scott Dermer and Stephen Riley, “Interpreting Idolatry: Reading Scripture with the Fathers, Wesley, and Contemporary Exegesis,” *WTJ* 48:1 (2013), 149-61; Amanda Kunder, “The Reception of Golden Calf Traditions in Early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November 14 to 16, 2012-Loyola University Chicago),” *ASE* 30:1 (2013), 261-69.

5) 논자의 입장과 달리 모세의 신명기 저작권을 부인하는 학자들도 많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소위 신명기사가 이론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후)기에 익명의 개인이나 학파가 히브리 정경의 신명기 및 전진지서에 이르는 역사 서사를 일관된 문학 작품으로 최종 편집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1943년 마틴 노쓰(Martin Noth)의 첫 제안 이후 수정 보완되며 발전했다. 논자가 다루는 출애굽기 및 신명기 본문과 관련하여 신명기사가 이론의 최근 논의를 보려면, 이영재,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출애굽기 31:18-24:35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2 (2007), 159-196.

6)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4), 557-558.

중심으로 거대한 교차 배열 구조를 띠면서 더 분명해진다. 아래에 전정진이 제시한 구조 분석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은 시내산 현현과 성막 완공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주제를 드러내는 두 부분으로 감싸인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성막 건설의 계획을 (B, C, D) 그대로 실현하셨고(B', C', D'), 그리하여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던 여호와와의 영광이(A)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으로 내려온다(A')

- A. 구름/불의 신현 (24:15-18)
- B. 궤, 상, 촛대 (25:10-40)
- C. 성막 (26:1-37)
 - D. 브살렐과 오홀리압 (31:1-11)
 - E. 안식일 (31:12-17)
 - F. 황금 송아지 사건 (31:18-34:35)
 - E'. 안식일 (35:1-3)
 - D'. 브살렐, 오홀리압과 다른 장인(匠人)들 (35:10-36:7)
- C'. 성막 (36:8-38)
- B'. 궤, 상, 촛대 (37:1-24)
- A'. 구름/불의 신현 (40:34-38)⁷⁾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 기록은 신명기 9장-10장에서 명시적으로 다시 나타난다.⁸⁾ 이 두 권의 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치명적 실패를 유사한 전개 방식으로 기술한다:

- 1) 모세가 시내산 여호와께 올라가 사십 주야를 머물며 언약의 두 돌판을

7)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2007), 200. 전정진처럼 이영재도 금송아지 일화를 교차 대구 구조의 중심에 놓는다. 이영재,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167.

8)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신명기 9장-10장에서 명백한 방식으로, 신명기 4장과 31장에서는 암시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Zipor, “The Deuteromic Account of the Golden Calf and its Reverberation in Other Parts of the Book of Deuteronomy,” 20-33.

받음(출 24:12-18; 31:18; 신 9:9-11)

-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아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알리심(출 32:7-10; 신 9:12-13)
-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심(출 32:9-10; 신 9:14, 19)
- 4)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출 32:11-14; 신 9:18, 25-29)
- 5) 모세가 시나이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에게 복귀(출 32:15-16; 신 9:15)
- 6) 모세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보고 두 돌판을 깨뜨림(출 32:19; 신 9:16-17)
- 7)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뺨아서 흐르는 물에 뿌림(출 32:20; 신 9:21)
- 8)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시나이산으로 불러 새 돌판들을 주시며 언약 회복(출 34:1-4, 10, 27-28; 신 10:1-5)

그러나 시나이 반역에 대한 모세의 두 기록에는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많다. 그는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처음엔 역사 서사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했고(출 32-34장), 죽음을 앞 둔 약 40년 후 그의 고별 연설문에서 같은 사건의 세부를 생략, 추가, 변형하는 등 신중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다시 진술했다.⁹⁾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40년 전 저질렀던 치명적 범죄 사건의 교훈을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적용했다.¹⁰⁾ 모세는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활용하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나이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했던 진노를 강조한다.¹¹⁾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는 언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모세의 경고는 신명기의 여러

9)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200.

10)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207.

11) 예: Jörg Jeremias, “The Wrath of God at Mount Sinai (Exod 32; Deut 9-10),” Christopher R. Seitz and Kent H. Richards, eds., *Th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The Work of Breward S. Childs* (Atlanta: SBL, 2013), 21-35 (특히, 23-24).

대목에서 관찰된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예식과 방탕한 축제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평행 본문으로 실려 있다.

<도표 1>

출애굽기 32:9-10	신명기 9:13-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מִשְׁמַד) 너를 큰 나라가 되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여(מִשְׁמַד)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뺏뺏한 백성”으로 보신다(출 32:9; 신 9:13).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기도 그 우상처럼 되었고, 그리하여 마치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송아지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고 있었다.¹²⁾ 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뚜렷한 진노를 표현한다. 예컨대,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에서 사용된 동사 “מִשְׁמַד”의 피엘형은 “끝내다, 그치다”는 뜻이다(출 32:10; 33:3, 5). 이 동사는 항상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으며,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완성하다”는 긍정적 의미도 전달한다(예. 출 39:32; 40:33; 대하 29:34; 겔 4:6). 그러나 모세는 이 동사를 자신의 설교에서는 모두 “שָׂמַד”로 교체한다(신 9:8, 14, 19, 20, 25).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진멸하다”는 뜻으로만 쓰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급격한 진노를 강조하기에는 “מִשְׁמַד”보다 더 적합했을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모세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를 “내가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는 두 가지 표현의 말씀으로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한다(출 32:10; 신 9:14).

흥미롭게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서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진멸하다”는 동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신명기와 정반

12) 그레고리 K. 비일, 김재영 · 성기문 역,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21-3.

대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던 동사가 이후 33장과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빛내기 위해 다시 사용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진멸하다” 동사와 “목이 뺏뺏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얼마나 대조적으로 사용하는지 [도표 2]를 통해 관찰해보자:

[도표 2]

출애굽기 32장-34장	신명기 9장-10장
<p>32: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מַמְדֵּם)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p> <p>33:3, 5 너희를 짓과 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p> <p>34:9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저들이 목이 뺏뺏한 백성임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p>	<p>9:6, 8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니라 ...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너희를 진멸하려 하셨느니라</p> <p>13-14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u>그들을 진멸하여(מַמְדֵּם)</u>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p> <p>10: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뺏뺏하게 하지 말라</p> <p>10: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뺏뺏하게 하지 말라</p>

하나님은 송아지를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이 “목이 끈은 백성”임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다(출 32:9-10).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신 후, 이스라엘이 “목이 끈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격분시키지 못한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거역하는 본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혹시 당신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시게 만든다(출 33:3, 5).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기로하신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길에서 진멸하시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신 것도 당신이 이스라엘 중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실 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기 위해서였다(출 33:3,5).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파했고, 그래서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다.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목이 뻗뻗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출 34:9).¹³⁾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셔야 하는가? 모세의 확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목이 뻗뻗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목이 뻗뻗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신다면, 정확히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더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과 동거하실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출애굽기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본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뚜렷한 이유라고 역설한다. 예컨대, 신명기의 청중이 시내산에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약을 거슬러 반역하는 본성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세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암시라도 하려는 듯, 모세는 신명기의 청중을 가리켜 “너희는 목이 끈은 백성”이라고 부른다(신 9:6).

13) 히. “לֹא-יָדָא אֱלֹהִים אֶת-יִשְׂרָאֵל בְּקִרְבָּנוּ כִּי עִם-קִשְׁטֵהוּ עָרָה הוּא” 한글개역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는 히브리어 “כִּי”를 이유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올바르게 옮겼다. 이것은 칠십인경의 “γάρ”와 탈굼 웅겔로스의 “אֲרִי” 등 고대 번역과 일치한다. 그러나 많은 현대 영역본은 이유절 대신 “even though/although”가 이끄는 양보절로 옮긴다(NASB, NIV, ESV, NRSV).

그들의 부모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과거를 회고한 뒤 교훈을 주는 결론 부분에서도 모세는 신명기의 청중들을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지목하며 “더 이상 너희의 목을 뺏뺏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신 10:16). 시내산 배교 사건을 회고하며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구별하지 않는 모세의 태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대목의 서두부터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너희를 진멸하려 하셨다”고 진술한다(신 9:8).

왜 모세는 그렇게 말했는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우상 숭배 사건을 교훈할 때, 모세는 그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반역하는 본성을 가졌다고 깨우쳐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세의 이런 의도는 그가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며 끼워 넣은 내용을 통해 더 분명해진다(신명기 9:21-25):

- 21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 같이 가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 22 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디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 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 24 내가 너희를 일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 2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출 32:20을 참조할 때, 21절은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22절부터 24절은 시내산 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지시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말해준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격노케 하여” 크게 범죄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디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다”(신 9:18, 23; 참조

민 11:1-3; 출 17:1-7; 민 11:31-35). 시나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고,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했다(신 9:12, 23).¹⁴⁾ 금송아지 숭배로 시나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격노케 하는 동일한 범죄를 최소한 네 번이나 더 저질렀다. 특히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시나산 반역 사건만큼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모세는 시나산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거역 사건을 모두 “여호와를 격노케 한” 범죄로 부름으로써, 안식할 땅으로 못 들어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범죄는 본질상 우상 숭배와 같음을 알려준다(신 9:18, 23-24).¹⁵⁾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모세는 출애굽기의 역사적 서사 내용을 신명기의 교훈적 설교에서 변형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한다.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설교하는 모세의 의도적 변형과 계산된 추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가 하나님께 드린 열정적인 속죄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발견된다. 편리한 비교를 위해 도표를 제시하겠다:

-
- 14)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시나산 반역 사건과 연결하는 이유는 두 사건 모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결사적 탄원도 동일했기 때문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 하셨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탄원은 그가 시나산에서 드린 탄원과 언어와 사상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민 14:11-19).
- 15)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이 교훈은 훗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명료한 언어로 선포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3). 모세가 신명기에서 남긴 교훈은 신약 교회의 중요한 유산이 된다. 출애굽 1세대가 금송아지 숭배와 가데스 바네아 반역 등 “하나님을 격노케 한 일”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본”으로 이해한다(히 3:7-4:11). 이에 관하여 Eric F. Mason, “Traces of the Golden Calf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Kunder, “The Reception of the Golden Calf Tradition,” 265에서 재인용).

[도표 3]

<p>출애굽기 32장, 34장</p> <p>32:10-12, 14, 19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p> <p>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 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촘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p> <p>32:30-33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산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p> <p>34:1-2, 27-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p>	<p>신명기 9장-10장</p> <p>9:14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p> <p>9:17-20, 25-29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p> <p>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앞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사 그를 진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앞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p> <p>10:1-4, 1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 내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p>
---	--

<p>보이되 ...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p>	<p>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교</p>
--	--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보여준다(출 32:11-14; 신 9:18-20, 25-29; 10:10).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무능하심과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호소한다(출 32:11-12).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출 32:14). 이후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온다. 그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현장을 보고 몹시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들을 던져 깨뜨렸다(출 32:19). 요컨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랐던 기간 중의 일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 파괴는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온 이후 벌어진 사건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와 유사하게 기록한다(출 32:10; 신 9:14). 그러나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응답을 모두 생략한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효과적으로 강조한다¹⁶⁾.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를 해석적으로 회고하는 신명기 기사에서 생략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추가 정보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신 9:26-29). 언뜻 보면 이 기도는 언어와

16) Christine E. Hayes, “Golden Calf Stories: The Relationship of Exodus 32 and Deuteronomy 9-10,” Hindy Najman and Judith H. Newman eds., *The Idea of Biblical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James L. Kugel* (Leiden: Brill, 2004), 75.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아직 산 위에 있을 때 드린 기도와 같은 기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가 시내산을 내려와 첫 두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기도를 드렸다고 밝히기 때문이다.¹⁷⁾ 모세는 첫 돌판들을 깨뜨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 “전과 같이 (הַשְּׁמַיִם)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얹드렸다(신 9:18). 출애굽기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사십 주 사십 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머문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 사십 주 사십 야 기간에는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고(출 24:18), 두 번째 기간에는 그 깨어진 돌판들을 대신하여 새 돌판들을 받았다(출 34:28).

그렇다면 신 9:18에서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얹드렸다”고 하는 모세의 말은 과연 그 두 기간들 중 언제를 가리키는가? 놀랍게도, 신명기 9:26-29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는 그 두 기간들 중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기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모세가 이미 산을 내려와 돌판을 깨뜨린 다음 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출 32:30). 두 번째 기간도 될 수 없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을 받아 새로운 돌판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를 드린 후라고 밝히기 때문이다(신 9:25, 10:1-4). 위의 표에서 나타난 대로, 이 사실은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의 돌판들을 받는 장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출 34:1-2, 27-28; 신 10:1-4, 10). 그러므로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설교에서 모세가 신 9:25-29에서 언급하는 기도는 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이후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이다. 사실 이와 똑같은

17) 이영재,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185. 그러나 논자는 이영재처럼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점들이 신명기 저자가 가진 정보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자가 보기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출애굽기 금송아지 단화에서보다 신명기 금송아지 단화에서 훨씬 더 강조했다. 저자 모세의 그 의도가 두 책의 차이점들을 만들었다.

시기에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출애굽기에서도 소개한다(출 32:30-33). 그러나 그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가 사십 주야에 걸쳐 드러졌다는 사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만 밝히는 새로운 사실이다(신 9:18, 25).¹⁸⁾

신명기에서 “사십 주 사십 야” 표현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신명기 기록에 담긴 모세의 해석적 의도를 이 표현이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일찍이 출애굽기에서 침묵했던 또 한 번의 시내산에서의 사십 주 사십 야 기간을 왜 나중에 신명기의 청중들에게는 밝혔던 것일까? 시내산 반역 사건 때문에 그들의 부모에게 여호와께서 발하신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신명기의 청중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사십 주야 동안 머물던 시내산에서 내려와 언약의 돌판들을 깨뜨린 다음 날, 그가 다시 산에 올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기억했을 것이다.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린 하루 뒤에 이스라엘의 “큰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에 오른다(출 32:30).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이 금신을 만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출 32:32).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모세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다. 이스라엘의 사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영원한 형벌을 당해도 좋다고 말했을 정도로 강렬했던 그의 절체절명의 간구, 모세는 왜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가? 모세는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그 이유를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

18) 일부 학자들도 신명기가 사용한 “사십 주 사십 야”의 반복적 사용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료 비평적 관점에서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역할 이외에 신명기의 이 표현이 가진 의미를 규명하진 못했다. 예. Robert H. O'Connell, "Deuteronomy IX 7-X 7, 10-11: Panelled Structure, Double Rehearsal and the Rhetoric of Covenantal Rebuke," *VT* 42:4 (1992), 492-509(특히, 495에서 Robert의 Lohfink의 분석에 대한 비판을 참조).

이스라엘에게 내리려던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출 32:14). 그러나 신명기 청중들에게 모세는 자기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음을 밝힌다(신 9:19, 25).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 크고 급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사십 주 사십 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그분 앞에 다시 엎드려 간구했던 것이다(신 9:18, 25).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언약의 돌판들을 깨뜨린 뒤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시내산에 머무르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출 34:28; 신 9:18).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그 기간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 기록하시는” 시간이다(출 34:27-28).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사십 주 사십 야 기간은, 이스라엘과 아론을 진멸하려는 여호와 앞에 그가 엎드려 빌기 위한 시간이다(신 9:18, 20).¹⁹⁾ 모세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는 말미 부분에서, 자신이 두 번째로 돌판들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사십 주 사십 야 기간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고 다시 여호와께 기도했음을 밝힌다: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신 10:10).

그렇다면 모세의 설교는 순전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본성과 여호와와의 진노만을 분명히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출애굽 제1세대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강력히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 제 2세대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범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되지 않을지 지혜를 준다. 그 지혜는 출애굽기 황금 송아지 숭배 기사 중 핵심 장면에 대한 모세의 주석적 권면 속에 들어있다.²⁰⁾ 이

19) Jeremias, “The Wrath of God at Mount Sinai (Exod 32; Deut 9-10),” 34.

사실을 [도표 4]의 관찰을 통해 확인해보자:

[도표 4]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9장	신명기 10장
<p>1-5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행할 신들(אֱלֹהִים)을 만들라 ...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אֱלֹהִים)이로다 ...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의 절기이니라</p>	<p>3 오늘 너는 알라 너의 신 여호와께서(יְהוָה אֱלֹהֶיךָ) 맹렬한 불과 같이 네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네 네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p>	<p>12, 17 이스라엘아 너의 신 여호와께서(יְהוָה אֱלֹהֶיךָ)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너의 신 여호와(יְהוָה אֱלֹהֶיךָ)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신 여호와(יְהוָה אֱלֹהֶיךָ)를 섬기라 ... 너희의 신 여호와(יְהוָה אֱלֹהֶיךָ)는 신들 중의 신이시며(אֱלֹהִים אֱלֹהֵי) 주 중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신(אֱלֹהִים)이시라</p>
<p>7-9 여호와(יְהוָה)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אֱלֹהִים)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저들은 목이 뿔뿔한 백성이로다</p>	<p>12 내게 이르시되 ...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p>	<p>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יְהוָ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p> <p>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뿔뿔하게 하지 말라</p>
<p>13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p>		<p>22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p>

20) 그러므로 신명기의 주석적 권면은 1) 이스라엘의 고칠 수 없는 죄성과, 2)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Hayes, "Golden Calf Stories: The Relationship of Exodus 32 and Deuteronomy 9-10," 72-74).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론에게 “우리 앞에서 행할 신들을 만들라”고 한다(עֲשׂוּהָ לָנוּ אֱלֹהִים אֲשֶׁר לָנוּ לְפָנֵינוּ)(출 32:1, 23). 여기서 “신들”로 번역된 “אֱלֹהִים”은 남성 복수형이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창조주를 가리킬 경우에는 “존엄 복수”로서 단수 취급되며,²¹⁾ “하나님”(God)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열국의 우상을 가리킬 경우 복수로 취급되며 “신들”(gods)로 번역된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우리 앞에서 행할 신들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때 “행할”에 해당하는 동사 “לַכֹּהֵן”도 복수형을 사용했다. 과연 그들은 외국 민족들처럼 여호와 외의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고자 했을까? 해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들이 너의 신들”(אֱלֹהֵי הָאֱלֹהִים)이라며 여전히 다수의 “신들”을 가리키긴 했어도, 그 금송아지가 곧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한 여호와이심을 선포했다(32:4).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속주를 외국의 신들처럼 복수의 존재로 호칭한 충격적 발언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다. 시내산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 부르는 소리를 모세에게 인용하신다(출 32:8). 이론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그들의 구속자 여호와의 정체를 부여하자, 이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며 금송아지 숭배를 여호와 숭배로 공포한다(출 32:5).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의 표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이집트인들에게 송아지나 황소는 그들의 신들의 형상으로서 가장 중요했고, 주로 “프타,” “아몬-레,” “레,” “오시리스” 등의 신들을 표상했다.²²⁾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구속자 여호와의 지난 사백삼십 년의 이집트 체류 기간 중 친숙했던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혼동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상을

21) Bruce K. Waltke &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21.

22) Allan Langner, “The Golden Calf and Ra,” *JBQ* 31:1 (2003), 45. 이에 관한 다른 참고문헌은 비일,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124, 각주 37.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송아지는 “바알”이나 “엘”, “달 신” 등을 상징했다.

가리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신들”로 부르며 그 신들을 여호와로 여겼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여호와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주조함으로써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는 제 2계명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제 1계명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뜻한다(출 20:3, 4; 신 5:7-9). 그래서 시내산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모세가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에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와의 위대함”이 있다. 이집트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너의 신 여호와”만 계신다(신 10:12, 17).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열방이 숭배하는 헛된 신들과 결코 동등이 되실 수 없다. 그는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신이기 때문이다”(신 10:17; 참조 신 6:4 여호와 우리의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이 범죄하여 “자기들 앞에서 행할 신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버리고자 하였으나(출 32:1), 오히려 친히 “그들 앞에서 나아가신다”(신 9:3).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극히 진노하셨으나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여호와는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다(출 32:13; 신 10:22).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로 예배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것이었다(출 32:7; 신 9:12).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신 10:3).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출 32:9; 신 10:16).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사건을 회고하며 교훈하는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열국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운 신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2. 여로보암 서사저자의 시내산 반역 사건 해석(출애굽기 32장-34장; 열왕기상 11:26-14:20): 열왕기서 역사가의 모세오경 해석

논자는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교훈적 설교가 뚜렷하게 강조한 교훈을 확인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 여호와와 “유일하심”을 믿는 확신으로 다신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배교를 피하라고 권면했다. 모세의 이 권면은 북 이스라엘 초창기(열왕기상 12장) 역사를 시내산 배교 사건을 배경으로 해석하는 열왕기 사가의 기록에서도 계속해서 메아리친다.²³⁾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송아지 숭배 사건이 어떻게 열왕기 사가의 여로보암 서사(narrative) 속에서 기억되고 해석되는지 살펴보자.

[도표 5]

출애굽기 32장	열왕기상 12장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드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나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보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보다 하고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을 보라

23) 여로보암 서사(왕상 12:25-14:20)를 기록한 역사가와 출애굽기 및 신명기의 황금 송아지 서사를 기록한 저자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성경 내적 해석 연구자들은 신명기 기록자가 열왕기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했다는 신명기사가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후대 역사가가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의 해석사를 보려면, Thomas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2009), 578-705. 그러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의 내적 해석은 그 본문들에 대한 후대의 편집 증거들이 아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이전 본문을 해석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p>신들이라 하는지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기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였도다</p>	<p>하고 29 하나는 벨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벨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벨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벨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p>
--	--

북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은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제작하여 숭배했던 장면을 재현한다. 특히,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을 보라”는 그의 외침은 시내산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외쳤던 말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한다(출 32:4; 왕상 12:28). 열왕기를 저술한 역사가의 이 인용문은 그의 청중으로 하여금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다. 이 인용문 외에도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 기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로 언약을 파기했던 사건의 세부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은 마치 시내산의 아론처럼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 송아지 숭배를 위한 “절기”를 선포한다(출 32:5; 왕상 12:32-33). 이스라엘은 아론이 임의로 정한 절기 날에 시내산 송아지 놓고 제사를 드렸듯이, 북 왕국 백성들도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렸다(출 32:8; 왕상 12:32).

여로보암 사건을 진술한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북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서 발생한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역사의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의 재현이다.²⁴⁾ 왕상 11:26에서 14:20까지 길게 지속되는 여로보암 서사는 문학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24) 비일,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p. 136.

다른 정경들과 다양하게 연결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²⁵⁾ 특히 여로보암 서사의 세부 항목들은 출애굽기 32장-34장의 시내산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의 요소들과 언어와 사상 면에서 상호 연결되면서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생산한다. 우선 여로보암이 주도한 북 이스라엘 건국은 모세가 주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벌어진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었고, 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온 후 이스라엘을 구한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지내던 현실을, 여로보암은 마치 그들을 구한 모세를 각각 재현한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은 솔로몬이 무겁게 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를 요구한다(왕상 12:4). 솔로몬 통치 하의 이스라엘은 마치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 받던 시대의 이스라엘과 닮았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고역 때문에 부르짖었고”(출 2:2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했다(출 5장).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은 파라오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보다 더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했다(출 5:9).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마치 파라오처럼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 혹독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이스라엘을 고역에서 놓아주는 대신 선왕보다 이스라엘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채찍을 휘두르겠다고 위협한다(12:14). 그러자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오도록 이끌었던 모세처럼 여로보암도 유다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끌고 나온다(12:20).²⁶⁾

여로보암 서사의 저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던 시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 저지는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와의 언약 백성에게 발생한 사건을 진술하면서 약 1000년 전 사건인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 파기 사건을 배경으로 활용한다. 바벨론 포로기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권세에 멸망했는지 질문하며

25) Robert L. Cohn, “Literary Technique in the Jeroboam Narrative,” *ZAW* 97:1 (1985), 23-35.

26) Amos Frisch, “The Exodus Motif in 1 Kings 1-14,” *JSOT* 87 (2000), 3-21 (특히, 14-15).

고민했을 것이다. 여로보암 시대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저지는 그들의 질문에 신학적 해답을 주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약 40년 전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 숭배 역사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그 청중들의 현실에 맞는 교훈을 끌어냈듯이, 열왕기서의 저자 역시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분열 왕국 초기의 황금 송아지 숭배 역사를 자신의 역사관을 통해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에 맞는 교훈을 끌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집트 제국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셨는데, 그는 왜 다시 이스라엘을 앗수르와 바벨론 같은 외국의 정치 제국에게 넘겨주셨는가? 여로보암 서사의 저지는 북 이스라엘의 패망의 근원적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언약 백성이 자기의 신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에 비겨 숭배했던 사건 속에서 찾았던 것이다.

여로보암 서사의 저자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북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파기했다. 이러한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지는 모세 시대의 송아지 숭배 사건을 여로보암 시대의 송아지 숭배 사건과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포로기 청중들에게 신학적으로 해석했다. 시내산 이스라엘의 배교를 선동했던 자들처럼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들에게 여호와의 정체성을 부여했다(출 32:4, 8; 왕상 12:28).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들을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한 죄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과 달리 용서받지 못했다.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기록(왕상 12장-14장)에서 시작하여 왕하 17장까지 이어지는 북 이스라엘의 역사 서사는 앗수르 제국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을 시내산 송아지 숭배와 관련하여 제시한다(17:7-18). 하나님은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며 춤추며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다(출 32:9; 신 9:13).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그들 조상들의 목처럼 하여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왕하 17:14-15).”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했다(왕하 17:16). 그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왕하 17:17-18).” 요컨대, 황금송아지 사건 때에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얻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의 때와 같은 범죄에 빠져 멸망했다.

본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포로기의 역사가는 여로보암 서사를 시내산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과 유사하게 서술한다. 그러나 시내산 송아지 숭배에 대한 그의 해석을 알려주는 더 중요한 자료는 두 사건 사이의 차별성에서 발견된다. 열왕기 저지는 여로보암 시대의 송아지 숭배가 시내산 이스라엘의 송아지 숭배와 비교하여 무엇이 달랐는지를 예리하게 강조한다. 시내산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사건이다. 그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들을 이끌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했다(출 32:1).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숭배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이스라엘과 달랐다. 그들은 지도자의 부재를 거론하며 신들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금송아지 숭배를 의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남쪽 유다와 정치적 갈등에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성소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곳을 찾아가 제사 드리려고 했을 만큼 신실했다. 이런 이스라엘이 송아지들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정치 지도자가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까 걱정했고(왕상 12:27),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벧엘과 단을 선택하고 그곳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다(왕상 12:29).

참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하여 열왕기 기지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로 파기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언약을 파기하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하셨다(출 34:12, 15-16):

- 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 15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 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 자들을 가나안 원주민들로 지목하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세우거나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듯이, 이스라엘을 똑같은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으라” 명령하셨다(출 23:13). 그러나 북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끈 자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다. 그들을 속인 자는 그들의 왕이었다. 여로보암이 속이는 자요, 반역하게 만든 유혹자였다.

여로보암 서사의 저자는 언약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숭배했던 이유는 인간 왕이 여호와께 받은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 저자는 여로보암이 언약 백성에 대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을 속여서 타락시켰는지 그 사악한 방식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논자는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

첫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했던 모세의 교훈을 거역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송아지를 여러 신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이집트의 여러 우상 신들과 동일시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했던 신들이라” 선포함으로써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잊게 만들고 또한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열국의 관습처럼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도록 이끌었다.

둘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 유사한 가짜 절기를 제정함으로써 언약 백성을 속였다. 이스라엘에 사내산 배교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엄숙한 말씀 중에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등의 “절기” 준수가 강조된다(출 34:18-26). 그것은 아론이 사내산에서 송아지 숭배를 위해 임의로 절기를 정했던 문제에 대한 조치였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야웨로 규정한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임의로” 선포했다: “내일이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הַיְהוָה יָמֵינוּ)”(출 32:5).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교절”을 칠일 간 지키도록 강조하신다(34:18). 아론은 “내일”이라며 임의로 절기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을 기념하여 “아빔월 정한 때에” 칠일 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구속됨”을 기념하는 절기다(12:15; 34:18). 무교절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치심을 기념하는 절기다(출12:12).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춤추던 황금송아지 축제와 달리, 침묵하고 절제하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הַיְהוָה יָמֵינוּ)”이다(출12:14). 사내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준수와 관련된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는 문제를 예방하심으로써 우상 숭배로 인한 언약 백성의 타락을 막고자 하셨다. 여로보암 시대의 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강조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짜 칠월 십 오일과 유사하도록 팔월 십오일을 절기로 공표했다(왕상12:32-33).

셋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 수 있었던 정치적 맥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계통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었다. 이 사실 역시 사내산 사건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사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반역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불렀고 레위 자손이 자원하여 모였다(출 33:26). 레위 자손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자기의 형제를 쳐서 여호와께 헌신한다(출 33:29). 그 사건을 회고하며 모세가 밝히듯, 그 헌신이 여호와께서 레위인들

을 택하사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이유였다(신 9:8). 그 레위인들은 시나산 반역의 현장에서 황금송아지 숭배를 반대하며 여호와와의 언약에 자기를 바친 충성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가 지은 산당들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왕상 12:31). 여로보암 서사를 기록한 저자는 그것이 여로보암 왕조의 죄가 되어 그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밝힌다(왕상 13:33-34).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오경의 저자로서 모세 및 여로보암 서사를 기록한 포로기의 역사가가 이스라엘의 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적 흐름을 형성하는 내용과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역사 서사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했다(출애굽기 32장-34장), 자신의 죽음을 앞 둔 약 40년 후 신명기의 고별 연설문에서 그 사건의 세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고, 혹은 변형하는 등 신중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해석했다. 모세는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지만, 그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활용하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나산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했던 진노를 그분의 은혜보다 훨씬 더 강조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시나산 금송아지 숭배 기록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생략하거나 추가하거나 변형하기도 했고, 사건의 진행 배열이나 속도를 변경했다. 무엇보다 그는 출애굽기에서 밝히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출애굽 제1세대의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제2세대에게 시나산에서 갱신된 언약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핵심을 효과적으로 교훈했다.

따라서 모세는 과거 시나산 사건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지침을 준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주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역사가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평가적 관점에서 여로보암 시대를 기록했다. 그는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제작과 산당 설치 및 북 이스라엘의 국가적 배교를,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의 초기였던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배교 사건의 재현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이스라엘의 시내산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해에서 마련했던 것이다. 이때 역사가는 시내산 송아지 숭배에 대한 그의 해석을 알려주는 더 중요한 자료를 두 사건 사이의 차별성을 통해 제시했다. 시내산 배교 사건 당시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스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 또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신 바와 달리,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배신하게 만든 유혹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었다. 그들을 황금 송아지 숭배에 끌어들이고 앗수르 제국에 의한 패망으로 이끈 배교의 장본인은 그들의 왕이었다. 여로보암 시대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는 언약 백성의 패망 원인을 시내산 배교 사건을 배경으로 다시 해석했던 것이다. 그 역사가의 최종적 평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의 배교를 용서하사 언약을 갱신하셨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의 신처럼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여로보암 시대의 죄악은 용서받지 못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범죄했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 전체를 여호와와의 언약을 배신한 범죄의 형벌을 당하게 했다.

<주요어>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 오경, 황금 송아지 숭배, 성경 내적 해석

<Keywords>

Exodus, Deuteronomy, Pentateuch, the Golden Calf Worship, Inner-biblical Intepretation.

* 접수일 2016년 8월 9일, 수정일 2016년 9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4일

참고문헌

- 이영재, “사경과 신명기 사이의 차이점 연구: 출애굽기 31:18-24:35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2 (2007), 159-196.
- 전정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황금 송아지 일화 비교,” 「Canon&Culture」 1:1 (2007), 192-234.
- 그레고리 K. 비일, 김재영, 성기문 역,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존 H. 세일해머, 『모세 오경 신학: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 김윤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Aberbach, Moses and Leivy Smolar, “Aaron, Jeroboam, and the Golden Calves,” *JBL* 86:2 (1967), 129-140.
- Allison Jr., Dale C.,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 _____,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 Alter, Robert, *The Pleasure of Read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9.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 Beale, G. K.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7.
- Berlin, Adele, “Qumran Laments and the Study of Lament Literature,” *Liturgical Perspectives: Prayer and Poetry in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Orio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ead Sea Scrolls and Associated Literature, January, 2000*, ed., Esther G. Chazon, Leiden: Brill, 2003, 6-17.
- Berger, Yitzhak, “Ruth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Case of 1 Samuel 25,” *JBL* 128:2 (2009), 253-272.
- Callan, Terrance, “Paul and the Golden Calf,” *Proceedings* 10 (1990), 1-17.
- Carr, David, “Method in Determination of Direction of Dependence: An

- Empirical Test of Criteria Applied to Exodus 34, 11-26 and its Parallels," *Gottes Volk am Sinai: Untersuchungen zu Ex 32-34 und Dtn 9-10*, eds., Matthias Köckert und Erhard Blum,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107-140
- Chazon, Esther G., "The Use of the Bible as a Key to Meaning in Psalms from Qumran," *Emanuel: Studies in Hebrew Bible Septuagint and Dead Sea Scrolls in Honor of Emanuel Tov*. ed., Shalom M. Paul. Leiden: Brill, 2003, 85-96.
- Childs, Brevard S., *The Book of Exod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4.
- Coats, George W., "The Golden Calf in Psalm 22," *HBT* 9:1 (1987), 1-12.
- Cohn, Robert L., "Literary Technique in the Jeroboam Narrative," *ZAW* 97:1 (1985), 23-35.
- Edenburg, Cynthia., "How (Not) to Murder a King: Variations on a Theme in 1 Sam 24; 26," *SJOT* 12:1 (1998), 64-85.
- Dermer, Scott and Stephen Riley., "Interpreting Idolatry: Reading Scripture with the Fathers, Wesley, and Contemporary Exegesis," *WTJ* 48:1 (2013), 149-61.
- Dozeman, Thomas., *Commentary on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Draisma, Sipke.,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1989.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 Frisch, Amos., "The Exodus Motif in 1 Kings 1-14," *JSOT* 87 (2000), 3-21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Hayes, Christine E., "Golden Calf Stories: The Relationship of Exodus 32 and Deuteronomy 9-10," *The Idea of Biblical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James L. Kugel*, eds., Hindy Najman and Judith H.

- Newman, Leiden: Brill, 2004, 45-93.
- Hughes, Julie A., *Scriptural Allusions and Exegesis in the Hodaya*, Brill: Leiden, 2006.
- Jauhiainen, Marko., *The Use of Zechariah in Revel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Kim, Daewoong,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Literary Allusions in Daniel to Genesis and Ezekiel," 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 Kunder, Amanda, "The Reception of Golden Calf Traditions in Early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November 14 to 16, 2012-Loyola University Chicago)," *ASE* 30:1 (2013), 261-269.
- Leonard, Jeffery M.,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BL* 127:2 (2008), 241-265.
- Lucas, Alec J., "Reorienting the Structural Paradigm and Social Significance of Romans 1:18-32," *JBL* 131:1 (2012), 121-141.
- Lyons, Michael A., *From Law to Prophecy: Ezekiel's Use of the Holiness Code*, New York: T & T Clark, 2009.
- MacDonald, Denis R., "Introduction,"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ed., idem.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2-3.
- Moberly, Walter W. L.,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Sheffield: JSOT Press, 1983.
- Mulder, Martin Jan and Harry Sysling,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Van Gorcum, 1988.
- O'Connell, Robert H., "Deuteronomy IX 7-X 7, 10-11: Panelled Structure, Double Rehearsal and the Rhetoric of Covenantal Rebuke," *VT* 42:4 (1992), 492-509.
- Paulien, Jon, "Criteria and the Assessment of Allusions to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tud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ed., Steve

- Moyise, Edinburgh: T & T Clark, 2001, 113-129.
- Schultz, Richard L., *The Search for Quotation: Verbal Parallels in the Prophe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Smoak, Jeremy Daniel, "Building Houses and Planting Vineyards: The Inner-biblical Discourse of an Ancient Israelite Wartime Curs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7.
- Stackert, Jeffrey, "Rewriting the Torah: Literary Revision in Deuteronomy and the Holiness Legislation," Ph. 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2006.
- Wold, Benjamin G., *Women, Men, and Angels: The Qumran Wisdom Document Musar leMevin and its Allusions to Genesis Creation Tradi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Zipor, Moshe A., "The Deuteronomic Account of the Golden Calf and its Reverberation in Other Parts of the Book of Deuteronomy," *ZAW* 108:1 (1996), 20-33.

<초록>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김대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성경 본문의 해석을 보편하고 또한 전수한 책으로서의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 내에서 내적 해석의 흐름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로서 시나산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고찰한다.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성경 저자들의 성경 내적 해석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이후 모세는 신명기 9장-10장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되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강조점을 끌어낸다. 오경의 저자로서 모세는 시나산 반역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이후 다시 신명기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해석의 예를 보여준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의 역사가에게도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주었으며, 시나산 언약 파기 사건을 강조한 모세의 의도는 여로보암 서사의 저자를 통해 충실히 지속되었고,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석되었다. 모세의 성경 내적 해석과 그 요점을 재사용한 열왕기 기자는 단과 벧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국가 정책은 본질상 이스라엘이 시나산에서 여호와를 송아지에 빚대어 숭배하여 반역했던 사건의 재현으로 설명했다. 이 포로 후기의 역사가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배신하도록 이끄는 미래의 유혹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들과 문화라고 했던 모세의 경고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배교와 언약 파기로 이끌었던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이 세운 왕이었음을 밝힌다.

<Abstract>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Calf Narratives

Prof. Daewoong Kim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his essay deals with the golden calf narratives as an exemplary text in which the Pentateuch preserved and transmitted Moses'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the same event. Furthermore, the case of Israel's worship of the golden calf embodies inner-biblical exegesis of the authors of the other books in the OT. The event in Exodus 32 was first written by Moses, who recalls it in Deuteronomy 9-10 with a new emphasis for the contemporary audience. Moses emphasizes the divine grace in the Exodus version of the golden calf narrative, whereas he modifies the point of the narrative in Deuteronomy by stressing the divine wrath more than the divine grace so as to warn the covenantal Israel of the critical danger of idolatry. Later, the golden calf narratives in the Pentateuch inspired the Kings' author, who reflected the narratives after the fall of Jerusalem by the Babylonians. The post-exilic Israelite historian understood the Jeroboam calves as a representation of the betrayal of Israel at Mt. Sinai through the calf worship. Unlike the Mosaic warning that the potential seduction of Israel into idolatry would be the cultic system of the Canaanites, Israel was led by her king (Jeroboam) to rebel their God and destroy the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God.